

공간에서 다시 장소로:

근현대 공간론의 한 가지 흐름

김 성 환*

주제분류 자연철학, 과학철학, 존재론

주요어 데카르트, 뉴턴, 이-푸 투안, 펠프, 매시, 벤야민, 장소, 공간

요약문

이 글의 목표는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공간론의 초점이 공간 개념에서 다시 장소 개념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첫째,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은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자연학을 철저히 기하학화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둘째, 데카르트의 소용돌이가 신비한 성질이라고 비판하는 뉴턴의 절대 공간도 물체의 운동을 기하학화하려는 의도를 데카르트와 공유한다. 셋째, 이-푸 투안과 펠프의 인본주의 지리학은 “장소 사랑”과 “무장소성” 개념을 통해 공간에 인간 의미를 더한 장소를 현대 공간론의 주요 개념으로 제안하지만 장소 개념의 정의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난점을 지닌다. 넷째, 장소 개념의 더욱 분명한 정의를 위해서는 장소와 권력의 관계를 살펴야 하고 매시의 젠더화한 장소 개념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 대전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머리말

공간(chora)과 장소(topos)가 이 글의 두 주요 개념이다. 장소와 공간을 포괄하는 공간론의 중심은 고대의 장소 개념에서 근대의 공간 개념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이 논문의 전편인 「장소에서 공간으로」에서 논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플라톤의 공간론은 코라²⁾로서 공간의 동일성에서 출발해 서로 다른 물체들의 서로 다른 장소들로 개별화하는 데서 맺는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장소 개념은 개별 물체가 차지하는 자리라는 뜻에서 개별성이 핵심 특징이다. 셋째, 갈릴레오의 공간론은 기하학 원자론에 기초하며 이 원자론에서 공간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뜻에서 동일성이 핵심 특징이다. 넷째, 데카르트의 공간론은 공간의 본성을 물체의 본성, 곧 기하학 차원을 가진다는 뜻에서 연장으로 봄으로써 물체의 운동을 기하학으로 다룰 길을 연다. 나는 이 네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고대 과학이 저물고 근대 과학이 성립하는 데 공간론의 변화, 곧 장소에서 공간으로의 전환이 한 가지 중요한 이론 배경을 이룬다고 논증했다.

이 글의 목표는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공간론의 초점이 공간 개념에서 다시 장소 개념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첫째,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은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자연학을 철저히 기하학화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둘째, 데카르트의 소용돌이가 신비한 성질이라고 비판하는 뉴턴의 절대 공간도 물체의 운동을 기하학화하려는 의도를 데카르트와 공유한다. 셋째, 이-푸 투안(Yi-Fu Tuan)과 렐프(E. Relph)의 인본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은 “장소 사랑(topophilia)”과

1) 김성환 (2018), 65-90쪽.

2) 플라톤의 코라는 특이한 내용을 가지므로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원어 그대로 쓴다.

“무장소성(placelessness)” 개념을 통해 공간에 인간 의미를 더한 장소를 현대 공간론의 주요 개념으로 제안하지만 장소 개념의 정의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난점을 지닌다. 넷째, 장소 개념의 더욱 분명한 정의를 위해서는 장소와 권력의 관계를 살펴야 하고 매시(D. Massey)의 젠더화한 장소 개념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2. 데카르트와 뉴턴의 공간론: 자연학의 기하학화

1)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

데카르트의 공간론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소용돌이 이론이다.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은 빈공간이 없다는 견해³⁾와 연결되어 많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보조 가설로 쓰인다. 우선 데카르트에 따르면 공간은 물질 입자들로 꽉 차 있고 이 물질 입자들은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다. 또 세 종류의 물질 입자들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운동 속력도 서로 다르다. 물질 입자는 클수록 운동 속력이 느리고 작을수록 운동 속력이 빠르다.⁴⁾

나아가 데카르트에 따르면 공간 속에서 물질 입자들은 소용돌이(vortex)를 이룬다. 물질 입자들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운동하고 있다. 이 운동은 어떤 중심 주위로 회전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공간은 소

3) 자세한 내용은 김성환 (2008), 145~148쪽 참고.

4) 물질 입자들이 공간을 꽉 채우려면 반드시 세 종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데카르트는 제일 큰 모난 입자들이 공간을 채우면 빈틈들이 생기고 그 빈틈들은 중간 크기의 둥근 입자들이 채우며 이 입자들이 남긴 빈틈들은 제일 작은 잔재 입자들이 채우는 그림을 제시한다. Descartes, R. (1984), 108~111쪽. 그러나 제일 작은 물질 입자들도 빈틈들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 빈틈들을 채우는 더 작은 물질 입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 물질 입자들의 크기는 무한히 작아지고 크기가 다른 물질 입자들의 종류는 무한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 물질 입자가 클수록 느리고 작을수록 빠르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큰 물질 입자도 큰 힘을 받으면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돌이치는 물질 입자들로 짝 차 있다. 그는 이 공간을 전제로 중력, 자기력, 유리, 호박, 흑옥의 인력과 척력 등 많은 자연 현상을 설명한다. 이 가운데 뉴턴과 논쟁이 일어나는 중력 현상, 예를 들어 공기 중에 떠 있는 돌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을 요약한다.⁵⁾

일반적으로 원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원심 성향을 가진다. 우리가 돌을 줄에 묶어 돌려보면 안다. 이 원심 성향은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 강하다. 돌은 세 종류의 물질 입자들 가운데 주로 크고 느린 입자들로 구성되고 공기는 주로 작고 빠른 입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면 돌이 공기 중에 떠 있어 공기와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공기가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원심 성향이 돌의 원심 성향보다 더 강하다. 따라서 공기가 돌보다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먼저 벗어난다. 그리고 빈공간은 없으니까 돌은 먼저 벗어나는 공기에 밀려나 빈공간을 채운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 우리 눈에는 돌이 땅에 떨어지는 중력 현상이 보인다.

중력 현상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은 허점투성이다.⁶⁾ 그러나 데카르트가 논란을 무릅쓰고 소용돌이를 끌어들이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한 가지 목표는 자연학을 기하학화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목표는 자연학에서 자연 마술의 전통을 몰아내는 것이다. 바로 이 둘째 목표가 데카르트

5) Descartes, R. (1984), 191쪽.

6) 무엇보다 소용돌이 중심축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다. 소용돌이의 중심축이 땅과 수직을 이루면 원심 성향은 땅과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돌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과 평행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 반대로 소용돌이의 중심축이 땅과 수평을 이루면 돌은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그 사이 어떤 각도로 날아갈 수도 있다. 또 물질 입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며, 돌이 큰 물질 입자들로 구성되고 공기가 작은 물질 입자들로 구성된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 데카르트는 설명이 어려울 때마다 신을 끌어들이는데, 신이 처음부터 물질 입자들을 세 종류로 만들었다, 신이 처음부터 물질 입자들이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등등. 논리로는 선결문체요구의 오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Descartes, R. (1984), 106-110쪽.

또는 데카르트주의자들과 뉴턴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목표부터 이해하면 첫째 목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뉴턴의 도발

“어떤 사람들은 중력이 신비한 성질이고 신비한 원인은 철학에서 곧 추방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대답은 쉽다. 정말로 신비한 원인은 존재가 신비한 것,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상상한 것이다. 진짜 존재를 관찰로 분명하게 증명한 것은 신비한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중력은 결코 천체 운동의 신비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 오히려 철저하게 허구이고 감각 기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물질 소용돌이를 가상해서 천체 운동을 좌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신비한 원인에 호소한다.”⁷⁾

뉴턴의 동료인 트리니티 칼리지의 플루미 석좌 교수 코츠(R. Cotes, 1682~1716)가 『자연 철학의 수학 원리』 2판(1713)에 붙인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이 글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신비한 성질”, “신비한 원인”에 붙어있는 “신비한(occult)”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개념을 사용한 원조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은 신비한 성질과 명백한(manifest) 성질을 구분한다. 명백한 성질은 감각 기관으로 직접 알 수 있지만 신비한 성질은 직접 알 수 없다. “신비한”은 감각 기관으로 직접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신비한 성질을 대표하는 예는 자기력이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자석의 색이나 모양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은 신비한 성질을 거부한다. 이 전통은 신비한 성질을 아예 없다고 보거나 있더라도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7) Newton, I. (1962), xxvi-xxvii쪽.

신비한 성질은 16세기에 성행한 자연 마술(natural magic)과 함께 부활한다. 자연 마술은 점성술, 연금술, 민간 의술 등을 포괄한다. 점성술에서 예를 들어 혜성의 출현과 가뭄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연금술에서 돌을 금으로 바꾸는 힘, 민간 의술에서 병을 낫게 하는 약초의 힘 등은 모두 각각 기관으로 알 수 없는 신비한 성질이다. 점성술, 연금술, 민간 의술 등은 모두 신비한 성질을 인정한다.

코츠의 글에서 핵심 내용은 뉴턴의 중력은 신비한 성질이 아니고 데카르트의 소용돌이가 신비한 성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츠가 신비한 성질이나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존재를 관찰로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존재를 관찰로 분명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과학 철학에서 “확증(confirmation)”이라 불린다. 확증은 어떤 관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에서 어떤 귀결을 계산 또는 연역하고 그 귀결의 참을 다른 관찰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코츠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중력은 확증된 것이지만 소용돌이는 확증된 것이 아니다. 중력은 태양과 지구에 관해 관찰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힘, 곧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뉴턴은 이 힘을 가정하고 지구가 그리는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을 계산한다. 그리고 지구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은 케플러(J. Kepler)가 이미 다른 관찰들로 확증했다. 코츠의 눈으로 보면 데카르트의 소용돌이는 확증된 것이 아니다. 소용돌이는 계산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 귀결의 참을 관찰로 뒷받침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 데카르트의 반발

그러나 데카르트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데카르트 시절에도 중력은 알려져 있었다. 문제는 중력이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력처

럼 신비한 성질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은 서로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가정하지 않고 소용돌이에 의한 원심 성향으로 공중에 뜬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후예들은 뉴턴에게 중력이 작용하는 원인을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뉴턴은 “나는 가설을 꾸미지 않는다”고 대답한다.⁸⁾ 데카르트의 눈으로 보면 뉴턴은 중력의 원인 밝히기를 거부한다. 이는 중력을 신비한 성질로 남겨두는 태도다.

나는 뉴턴의 중력이 신비한 성질이라는 데카르트 또는 데카르트주의자들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중력은 감각 기관으로 직접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연 마술의 하나인 연금술 덕분에 뉴턴이 쉽게 받아들이고 원인 따지기를 거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뉴턴은 연금술사였다. 과학사 연구자들에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⁹⁾

뉴턴은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을 거시 물체뿐 아니라 미시 물체에도 확장하려 한다.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 원리』에서 거시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을 증명한 뒤 몰두한 문제는 이 힘을 미시 물체들로 확장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실패했고 뉴턴은 『광학(Opticks)』(1706)의 마지막에 나오는 31개의 질문으로 후학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구 과제를 남긴다.

전기, 자기, 열, 불, 화학 현상 등에도 중력과 비슷한 힘이 있을 것이고 이 힘을 찾아내어 수학으로 기술하면 이 분야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중력과 비슷한 힘”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힘은 첫째, 입자들 사

8) Newton, I. (1962), 547쪽.

9) 뉴턴의 연금술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Dobbs, B. (1975), 웨스트폴, 리차드 (2001), 김성환 (2008).

10) Newton, I. (1953), 375~406쪽.

이에서 작용하고 둘째,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작용하며 셋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뉴턴이 실패한 일은 예를 들어 자기 현상을 일으키는 자기 입자들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또 이 값을 어떤 다른 관찰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광학』에서 뉴턴이 남긴 질문은 그 후 200년 동안 뉴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계를 지배한다. 전기, 자기, 열, 불, 화학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제각기 자기 분야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실패한다. 예를 들어 화학 분야에서 18세기를 지배한 연구는 화학 원소들 사이의 친화도(affinity) 연구다. 화학자들은 온갖 원소들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는 친화도를 실측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다고 입증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성공한 분야는 전기에서 쿨롱(C. Coulomb)의 법칙뿐이다.¹¹⁾

뉴턴이 이렇게 미시 입자들 사이에도 중력과 비슷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 중요한 배경은 연금술 연구다. 뉴턴은 신비한 성질을 거부할 수 없는 연금술사다. 뉴턴의 전기를 쓴 웨스트폴(R. Westfall)에 따르면 뉴턴이 연금술에 관심을 기울인 까닭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뉴턴이 보기에 데카르트의 기계론은 영혼과 물체를 극단으로 분리해 자연에서 영혼을 제거하고 물질 입자의 운동만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한다. 반면 뉴턴은 연금술에서 자연을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로 이해하는 방법을 본다. 웨스트폴에 따르면 뉴턴은 연금술이 열어주는 시야로 기계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물질 입자의 배후에 있는 활성 원리를 탐색하려 한다.¹²⁾

그러나 데카르트가 소용돌이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중력을 신비한 성질로 남겨두지 않고 그 원인을 지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비록 중력을 감각 기관으로 직접 지각할 수 없지

11) 김성환 (2008), 284~287쪽.

12) 웨스트폴, 리차드 (2001), 298쪽.

만 중력 현상을 결과로 낳는 원인을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미시 메커니즘으로 소용돌이 이론을 고안한다.

데카르트는 자연학에서 자연 마술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한다. 그는 자기 현상을 처음 실험으로 연구한 길버트(W. Gilbert)가 자기력을 “공감(sympathy)”과 “반감(antipathy)”으로 보고 자기가 모든 사물 속에 있는 활성 원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소용돌이 이론으로 자기 현상을 설명한다.¹³⁾ “보통 신비한 성질의 탓이라고 여기는 나머지 모든 놀라운 효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지금까지 (소용돌이 이론으로 자석에 관해)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데카르트가 중력과 자기력을 비롯한 유리, 호박 등의 인력과 척력도 소용돌이 이론으로 설명하는 목표는 자연학에서 신비한 성질을 몰아내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자연 마술 청소부다.

데카르트가 자연학에서 자연 마술을 청소하는 까닭은 자연학을 기하학화하기 위해서다. 자연학에서 신비한 성질을 몰아내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남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에는 신비한 성질이 조금도 없다. 소용돌이 이론에 등장하는 물질 입자들의 크기, 모양, 운동속력 등은 모두 기하학의 측정 가능한 차원들, 곧 데카르트가 연장이라 부른 길이, 너비, 깊이로 기술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계산과 확증을 허용하지 않아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지만 적어도 목표만큼은 자연학을 기하학화하는 것이다.

4) 뉴턴의 절대 공간

뉴턴은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을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절대 공간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늘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는다.”¹⁵⁾ 상대 공간은 “절대 공간의 어떤 움직이는 차원 또

13) 김성환 (2008), 147~148쪽.

14) Descartes, R. (1984), 278~279쪽.

15) Newton, I. (1962), 6쪽.

는 척도다. 상대 공간은 우리의 감각 기관이 물체들에 대한 그 공간의 위치에 따라 파악한다.”¹⁶⁾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 예를 보자.

“예를 들어 배가 놓여 있는 지구의 부분이 속력 10010으로 진짜로 동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자. 그리고 강풍이 부는 가운데 배는 돛을 활짝 펴고 속력 10으로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자. 그 배 위에서 선원이 속력 1로 동쪽으로 걷는다고 하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절대 공간 속에서 그 선원은 속력 10001로 진짜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 선원은 지구 위에서 속력 9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¹⁷⁾

이 예에서 절대 공간은 선원이 속력 10001로 동쪽으로 움직이는 공간이다. 뉴턴은 절대 공간 속에서 움직임에 대해 “진짜로(really)”라고 수식한다. 배가 놓여 있는 지구의 부분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속력 10010은 절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속력이기 때문에 진짜다. 선원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속력 10001도 절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속력이기 때문에 진짜다. 10010과 10001은 지구 밖에서 볼 때 배가 놓인 지구 부분과 선원이 움직이는 속력이다. 배가 서쪽으로 움직이는 속력 10은 지구 안에서 본 속력이고 선원이 동쪽으로 걷는 속력 1은 지구 안 배 위에서 본 속력이며 선원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속력 9는 지구 안 배 밖에서 본 속력이다.

공간 개념을 도입하면 10010과 10은 배가 차지하는 지구 공간, 10001과 1과 9는 선원이 차지하는 지구 공간이 제각기 시점에 따라 달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속력이다. 이 공간들은 모두 움직이고 감각 기관으로 속력을 알 수 있으니까 절대 공간이 아니라 상대 공간이다. 절대 공간은 배가 차지하는 상대 공간이 1001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선원이 차

16) Newton, I. (1962), 6쪽.

17) Newton, I. (1962), 7쪽.

지하는 상대 공간이 10001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늘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다.

뉴턴은 상대 공간이 “절대 공간의 어떤 움직이는 차원 또는 척도”라고 말한다. 차원은 기하학에서 길이, 너비, 깊이를 의미하고 척도는 켈 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0010, 10, 1, 10001, 9는 모두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고 켈 값이다. 그리고 이 차원과 켈 값은 절대 공간의 차원이고 켈 값이다. 절대 공간이 외부에 있는 어떤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은 같은 예에서는 지구, 배, 선원 등의 물체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지구, 배, 선원 등과 관련해 우리가 감각 기관으로 알 수 있는 공간은 “물체들에 대한 그 공간의 위치에 따라 파악한” 상대 공간이다. 절대 공간은 지구, 배, 선원 등이 차지하는 상대 공간의 “진짜” 속도를 차원으로 표현하고 그 값을 재는 기준 또는 틀이다.

절대 공간이 상대 공간을 차원 또는 켈 값으로 표현하는 기준이나 틀이며 늘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 공간의 유력한 후보는 상대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우주 전체다.¹⁸⁾ 우주 속에 있는 많은 별이 움직이고 그 별 속에 있는 많은 물체도 움직이는 것은 그 별이나 물체가 차지하는 상대 공간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공간의 움직임은 감각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상대 공간을 모두 포함하며 늘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는 절대 공간으로서 우주 전체는 감각이나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나 상상의 대상이다.

18) 절대 공간의 다른 후보는 신이다. 이 해석은 절대 공간의 정의에서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어떤 속성을 가진다는 데서 성립한다. 절대 공간의 속성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신의 등급이라고 시사한다. 글릭(J. Gleick)에 따르면 “뉴턴은 신을 의무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의 기틀로서 믿었다. ... 뉴턴은 신이 부동의 존재라고 믿었고 이러한 신념은 아직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절대 공간에 대한 그의 관점과 융합되었다.” 글릭, 제임스 (2008), 124쪽. 뉴턴의 절대 공간이 신이라면 신도 자연 철학의 수확화를 보장하는 원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우주 전체가 사유나 상상의 대상이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물체를 사유나 상상으로 삭제한 우주 전체는 늘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 전체를 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우주 전체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가설과 관찰 증거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18세기에 칸트(I. Kant)가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형이상학 사변의 대상이라고 했듯이 17세기 뉴턴 시절에도 우주 전체는 사유 또는 상상의 대상이었다.

절대 공간이 우주 전체이고 우주 전체가 사유 또는 상상의 대상이며 늘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면 이 우주 전체로서 절대 공간은 현실 공간이 아니라 수학 공간이라 할 수도 있다. 현실 공간은 상대 공간이어서 움직이지 않는 듯이 보여도 시점을 바꾸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배 위에서 선원이 가만히 서 있어도 배 밖이나 지구 밖에서 보면 선원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학 공간, 예를 들어 가로, 세로를 가진 2차원 공간은 컴퓨터 모니터에 그린 1줄, 1칸짜리 표처럼 늘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뉴턴은 감각 기관으로 알 수 없는 수학 공간으로서 절대 공간이 전제로 있어야 상대 공간을 차원과 척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 원리』에서 증명한 중력 법칙, 행성 운동 법칙, 자유 낙하 법칙 등은 모두 절대 공간 속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상대 공간의 움직임에 관한 법칙들이므로 수학 공간으로서 절대 공간을 전제한다. 뉴턴은 절대 공간의 이름으로 자연 철학의 수학적화, 『자연 철학의 수학 원리』의 언어로는 기하학화에 성공한다.

3. 현대 공간론: 공간 개념에서 다시 장소 개념으로

현대의 공간론은 이 논문의 두 가지 주요 개념인 공간과 장소에 대해

다채로운 그림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몇 가지만 짚어 보자. 과학에서 공간론은 19세기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면서 뉴턴의 역학이 바탕으로 삼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대안이 나왔고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절대 공간을 무력화했다.¹⁹⁾ 건축학에서는 빌딩과 아파트가 상징하는 도시 계획 공간이 공간 개념을 대표했지만 최근 정체(identity)가 있는 공간을 창조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장소 개념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유아기부터 몸의 감각과 운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갈 때 수면, 음식 섭취, 배설, 놀이, 주거 등과 관련해 장소에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²⁰⁾

생물학은 먹이, 짝과 더불어 3대 자원인 터를 늘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최근에는 동물과 곤충이 안전한 장소에 애착을 보이는 현상이 있으므로 장소 애착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연구 성과도 있다.²¹⁾ 문화학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있는 거대한 고원 바위, 에어즈록(Ayers Rock)에서 모든 나무, 모든 얼룩, 모든 구멍이 원주민들에겐 신화의 의미를 지닌다는 예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한 문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실존 공간 또는 생활 공간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²²⁾

기하학, 물리학, 건축학, 심리학, 생물학, 문화학 등이 공간 또는 장소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복잡다단한 공간론을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는 한 가지 방법은 근대 공간론에 비해 다르게 나타나는 현대 공간론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다. 나는 현대 공간론의 한 가지 거시 특

19)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 대한 혁명적 강습으로 비취졌다. 그는 운동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기하학에 의해 비틀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클릭, 제임스 (2008), 206쪽.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4차원, 즉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이 결합된 연속체이고 이 연속체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에 대해 이 물체가 위치한 공간이 휘어진다.

20) 스피박(G. Spivak)의 원형 장소 탐구가 대표적이다. 펠프, 에드워드 (2005), 41~42쪽.

21) 포트만(A. Portmann)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펠프, 에드워드 (2005), 42쪽.

22) 라포포트(A. Rapoport)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펠프, 에드워드 (2005), 50쪽.

징이 공간 개념에서 다시 장소 개념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이 이행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소 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1) 인본주의 지리학의 장소 개념

사람들이 북위 37도 57분, 동경 126도 97분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두 말은 느낌이 다를 것이다. “북위 37도 57분, 동경 126도 97분”은 지구 북반부 동쪽 어딘가의 위치 정보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많은 것을 떠올린다. 누군가에겐 2016~17년 겨울 촛불 시위가 떠오를 것이고 누군가에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탄핵이 떠오를 것이다. 누군가에겐 서울 여행의 기억이 떠오를 것이고 누군가에겐 미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 받으러 간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지표(earth surface)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된다. 이 때 지표는 위도와 경도나 주소로 표시할 수 있는 위치뿐 아니라 인간 삶의 터전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리학은 지표의 위치만 연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연 환경, 인문 환경, 인간의 상호 작용도 연구한다. 그러나 지리학이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지표를 바라보면 인간 삶의 터전을 소홀히 하고 위치로 생각하기 쉽다. 공간은 근대 과학이 밝혔듯이 물리학 법칙이 성립하는 수학 공간이고 개별 물체나 인간이 차지하는 특별한 장소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 공간을 위치로서 지표로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 기업, 정부의 상호 작용과 통합을 의미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배경이 될 수 있다. 1998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가 중력의 힘에는 저항할 수 있어도 세계화의 힘에는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한다.²³⁾ 이 말은 미국의 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저항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

한다. 지구 공간을 위치로서 지표로 생각하는 데 기초한 세계화는 역사가 길다. 지리학자 매시(D. Massey)에 따르면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에스파냐 군대를 이끌고 공간을 가로질러 항해해 테노치티틀란(현 멕시코시티)을 발견하고 정복했다고 기술하는 것도 지구 공간을 위치로서 지표로 생각하고 발견과 정복을 통한 세계화를 정당화하는 관점이다.²⁴⁾

1970년대에 등장한 인본주의 지리학은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지표를 지리학의 중심에 놓으려는 시도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장소를 중시하고 공간과 구별해 정의한다. 장소의 정의는 인간의 감정, 경험, 지식, 행위, 창의, 가치 등 인간 의미(human significance)로 풍부해진 공간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의 문을 연 이-푸 투안(Yi-Fu Tuan)은 『토포필리아』(1974)에서 “장소(topos)”와 “사랑(philía)”의 합성어인 “장소 사랑” 개념을 제안한다.²⁵⁾ 장소 사랑은 장소에 대한 인간의 애착을 의미한다. 누구나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나 장소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사랑에 그치지 않는다. 미움, 회한, 감동, 증오, 반성, 긍지, 수치 등 거의 모든 인간 감정이 장소와 관련해 나타난다. 나아가 감정 뿐 아니라 인간의 경험, 지식, 행위, 창의, 가치 등 이-푸 투안의 용어로는 “인간 의미”가 장소에 함축되어 있다. 광화문 광장은 인간 의미를 더하면 2016~17년 촛불 시위가 일어난 곳, 서울 여행 때 들른 곳, 미국 대사관에 갈 때 거친 곳이라는 장소가 된다.

인본주의 지리학자이며 철학자 렐프(E. Relph)는 『장소와 장소 상실』(1976)에서 “무장소성(placelessness)” 개념을 제안한다.²⁶⁾ 무장소성은 장소가 정체성을 잃고 어디나 재배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소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잃을 수 있다. 광화문 광장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

23) 매시, 도린 (2016), 29쪽.

24) 매시, 도린 (2016), 24~28쪽.

25) 투안, 이-푸(2011), 21쪽, 146쪽.

26) 렐프, 에드워드 (2005), 145쪽.

는 정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전쟁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파괴되거나 통제되면 정체를 잃고 무장소성을 지닐 수 있다. 무장소성은 도시에서 수많은 재개발로 개성 있는 장소들이 철거되고 규격화한 경관이 들어서는 것이기도 하다.²⁷⁾

렐프는 장소가 정체를 잃는 것을 장소의 디즈니화라고도 부른다.²⁸⁾ 디즈니랜드는 꿈처럼 환상적인 가짜 장소다. 디즈니화는 디즈니랜드처럼 가짜 장소를 만든다는 뜻이다. 요즘 정체는 한 사람이 가상 공간에 여러 개 가진 아이디처럼 가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래 정체는 “정체를 밝혀라.” “그래 나는 간첩이다.”라고 말할 때처럼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러므로 가짜 장소를 만드는 장소의 디즈니화는 장소의 진짜 정체를 잃는 것, 곧 무장소성의 다른 말이다.

2) 장소의 정의 문제

장소 사랑과 무장소성은 공간에 인간 의미를 더한 장소를 현대 공간론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지만 장소 개념은 정의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난점을 지니고 있다. 장소 개념의 정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간 개념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소용돌이나 뉴턴의 절대 공간이 과학의 수학을 위한 전제로서 추상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면 장소 사랑과 무장소성이 보여주는 장소 개념은 인간 의미를 더해 정체를 지니거나 잃는 구체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고 구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간과 장소를 추상 공간과 구체 공간으로 구별하는 것도 허술하다. 도시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가짜로 만든 디즈니랜드는 추상 공간이고 아파트 개발로 철거된 집들, 촛불 시위가 일어난 광화문 광장은 구체 공간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 아파트가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에

27) 렐프, 에드워드 (2005), 12~13쪽.

28) 렐프, 에드워드 (2005), 214~215쪽.

따라 값의 차이가 난다는 것과 디즈니랜드가 아이들에게 꿈의 동산이라는 것도 인간 의미라면 아파트나 디즈니랜드도 추상 공간이 아니라 구체 공간, 곧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공간에 인간 의미를 더한 장소 개념은 정체를 잃은 장소에도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외관, 인테리어, 메뉴 등에 큰 차이가 없고 마치 컨테이너처럼 쉽게 옮겨 놓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정체 없는 무장소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은 젊은 세대, 요즘은 중장년 세대도 음식이나 커피를 놓고 대화하는 곳, 혼자 폰, 노트북, 책을 펼쳐 놓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사람들에게겐 패스트푸드점도 얼마든지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경험, 기억, 가치 등 인간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장소다.

매시는 장소 개념의 이런 난점을 고려해 진보적 장소감(sense of place)을 제안한다.²⁹⁾ 장소감은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생기는 감각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보수적 장소감은 한 장소에 한 정체와 한 장소감만 허용한다. 그러나 진보적 장소감은 한 장소에 여러 정체와 복수의 장소감을 허용한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분노와 긍지의 장소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증오와 복수의 장소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 여행의 행복이나 미국 여행 비자 발급의 번거로움의 장소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장소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한 정체와 한 장소감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와 다양한 장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매시의 눈으로 보면 장소는 서로 다른 삶의 궤적들(trajectories)이 접촉하고 교차하는 마디들(nodes)이다.³⁰⁾ 한 장소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삶의 궤적들이 만난다는 것은 다양한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만나고 사랑하고

29) 크레스웰, 팀 (2012), 104~109쪽.

30) 매시, 도린 (2016), 285~297쪽.

갈등하고 싸우고 협상하는 등등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권력이 장소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 시위에 찬성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민주주의의 성지지만 촛불 시위에 반대한 개인이나 집단에겐 종북 좌파의 천국이다. 이-푸 투안이나 펠프 같은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 제안한 장소 사랑이나 무장소성은 어떤 장소에 대해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애착이나 정체 상실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장소의 의미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에 따라 다양하며 그 의미에는 권력이 개입한다. 장소 개념의 더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장소와 권력의 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3) 장소, 권력, 젠더

인본주의 지리학은 1980년대부터 장소와 관련해 권력, 젠더, 계급, 인종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미 철학자 르페브르(H. Lefebvre)가 『공간의 생산(*La production de l'espace*)』(1974)에서 일관되게 펼친 생각은 공간의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³¹⁾ 촛불 시위 세력은 광화문 광장을 지배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힘을 얻고 행사한다. 촛불 시위에 반대하는 세력이 서울역에 머물지 않고 서울 광장, 광화문 광장에 진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공간의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의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라면 장소는 권력의 사회 구성물이 된다. 장소는 서로 다른 삶의 궤적들이 접촉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곳, 다양한 권력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곳이다. 장소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일 수 없다. 장소는 역사, 정치, 사회, 문화의 과정들을 통해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에서 사회 구성물이다.

매시는 장소 개념이 권력, 더 나아가 사회 요인들에 의해 구성된 성,

31) 르페브르, 앙리 (2011), 57쪽.

곧 젠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시에 따르면 공간과 장소는 젠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에서 젠더화한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매시는 리버풀 축구 클럽의 열렬한 팬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축구와 관련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홉, 열 살쯤 되었을 때 나를 사로잡곤 했던 광경이 지금도 매우 분명하게 기억난다. 당시 나는 맨체스터 외곽에 살고 있었고 ‘시내로 나들이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행사였다. 그것은 한 시간 반도 더 걸렸고 우리는 버스 2층에 앉아서 갔다.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머시 강가의 낮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는데 내 기억 속에서는 눅눅한 진흙투성이 들판이 저 멀리 차갑고 안개 자욱한 곳까지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경관은, 맨체스터에 위치한 이 광대한 땅은 풋볼 경기장과 럭비 경기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우리가 시내 나들이를 하곤 했던 토요일마다 그 거대한 지역은 수백 명의 조그마한 사람들로 뒤덮였다. 내가 볼 수 있는 한 모두들 공을 뒤쫓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거대하게 펼쳐진 머시 강변의 범람원이 거의 완전히 소년들로 뒤덮여 있었던 광경은 혼란스러웠고 약간 사색적인 어린 소녀였던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 경기장에 가 보진 않았다. 그곳은 마치 빗장을 질러 놓은 다른 세계 같았다.”³²⁾

어린 소녀 매시에게 맨체스터 머시 강의 범람원에 있는 축구와 럭비 경기장은 금지 구역이었다. 이 경기장은 남자들에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지만 여자들에겐 가고 싶지 않고 다른 세계 같은 장소, 곧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받아들이는 젠더화한 장소였다. 매시는 별거벗은 여자 그림들로 가득 찬 미술관도 젠더화한 장소라고 말한다.³³⁾ 별거벗은 여자 그림들로 가득 찬 미술관은 별거벗은 여자들을 보는 남자 화가들의 시선이 가득 찬 장소다. 매시는 그 미술관에서 자신도 별거벗고 있다는

32) 매시, 도린 (2015), 326-327쪽.

33) 매시, 도린 (2015), 327-328쪽.

느낌, 자신이 서 있는 미술관의 장소가 그림 속 벌거벗은 여자들이 서 있는 장소들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힌다.

젠더화한 장소는 권력화한 장소의 일부다. 매시에게 축구와 럭비 경기장, 벌거벗은 여자 그림들로 가득 찬 미술관이 불편한 까닭은 그 경기장과 그 미술관 또는 그 미술 작품들이 탄생한 화실들이 남성들에게 장악된 장소들이기 때문이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의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고 매시에 따르면 장소의 지배가 젠더 권력의 원천이다.

4. 맺음말: 장소와 아우라

인본주의 지리학의 장소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으로 현대 공간론의 초점이 공간 개념에서 다시 장소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인본주의 지리학의 장소 개념이 앞에서 짧게 말한 건축학, 심리학, 생물학, 문화학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철학은 현대 공간론의 초점이 장소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설을 주목하고 추적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³⁴⁾

34) 현대 과학에서 공간은 근대 과학과 차이가 있다. 로바체프스키(N. Lobachevskii), 리만(B. Riemann) 등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선 공리, 즉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 있다는 공리를 부정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창안했다.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평평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식 때 별들의 궤도가 휘어지는 것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공간은 전혀 인간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동질적이다. 한편 건축학에서 공간은 예를 들어 똑같은 한두 가지 모델로 수 천 개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개인마다 다른 인간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 온갖 도시 재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와 인간 의미를 충분히 살리려는 장소성을 중시할 수도 있다. 또 생물학에서 공간도 동물이 서식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터로서 장소성을 중시할 뿐 아니라 무생물, 동식물, 인간이 함께 사는 생태계로서도 장소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과학과 공학에서도 인간 없는 공간 대신 인간 의미를 포함한 장소를 중시

장소 개념은 현대 철학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후설(E. Husserl)과 하이데거(M. Heidegger)의 철학이 장소에 관한 인식론과 존재론으로 재해석된다. 이미 웰프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방법론으로 후설의 현상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³⁵⁾ 또 『하이데거의 토폴로지: 존재, 장소, 세계 (Heidegger's Topology: Being, Place, World)』를 쓴 말파스(J. Malpas)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사유를 주도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Da)”, 곧 장소에서 발견하는 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이다.³⁶⁾ 케이시(E. Casey)는 『장소의 운명(The Fate of Place)』에서 우주 창조론부터 현대 철학까지 공간과 장소의 철학사를 서술하면서 현대 철학에서 후설과 하이데거뿐 아니라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들뢰즈와 가타리(G. Deleuze & F. Guattari), 데리다(J. Derrida), 이리가레이(L. Irigaray)도 소환한다.³⁷⁾ 이 모든 장소 철학자들은 여기서 함께 다를 수 없고 따로따로 다루어야 한다. 나는 이 목록에 아우라(aura) 개념을 철학에 도입한 벤야민(W. Benjamin)을 추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이-푸 투안이 말한 장소 사랑은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사람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준다.³⁸⁾ 현대 사회는 모든 사물이 속도를 더 내어 불안감을 고조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안정감을 원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사람은 안정감을 추구한다면 장소가 세계를 경험하고 삶을 영위하는 바람직한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장소 사랑은 일종의 회피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적어

하는 움직임은 현대 공간론의 초점이 공간에서 장소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5) 웰프, 에드워드 (2005), 13~14쪽.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을 탐구하는 전기와 생활 세계를 탐구하는 후기로 나뉘는데 의식은 일정한 장소에 있어야 발동하고 생활 세계도 인간을 일정한 장소에 있는 신체로 본다는 점에서 장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6) Malpas, J. (2006), 1~2쪽.

37) 케이시, 에드워드 (2016).

38) 투안, 이-푸(2011), 53~57쪽.

도 장소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함께 드러내는 길을 찾는 것이 인간 삶의 터전을 꾸리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모색해볼 만하다.

철학자 벤야민(W. Benjamin)의 “아우라(aura)” 개념은 장소가 지닌 고유성을 포착하고 안정성과 역동성을 함께 드러내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벤야민은 사진, 영화 등 예술 작품의 복제물이 넘쳐나는 것을 아우라의 몰락이라 부른다. 아우라는 예술 작품의 유일무이한 진품성이다. 사진, 영화 등은 진품이 아니고 유일하지도 않으므로 아우라가 없다. 벤야민은 아우라의 몰락을 긍정적으로 본다. 아우라가 몰락해야 대중도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복제품만 보다 보면 진품이 보고 싶다. 철학자 메르쉬(D. Mersch)는 축제, 스포츠 등 퍼포먼스를 지각하는 미 경험을 아우라라 부른다.⁴⁰⁾ 퍼포먼스는 지금 여기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아우라를 지닌다. 퍼포먼스뿐 아니라 장소도 아우라를 지닌다. 유명한 장소, 예를 들어 런던의 시계탑 빅 벤은 영화를 통해 보면 아우라를 잃지만 현장에서 보면 아우라를 지닌다.

장소의 안정성과 역동성은 장소의 아우라를 경험하면 함께 느낄 수 있다. 장소의 아우라를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숭고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칸트에 따르면 숭고는 상상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파탄할 때 느끼는 공포를 이성이 감당할 때 느끼는 기쁨으로 상쇄하면서 경험한다. 숭고는 공포, 불쾌와 기쁨, 쾌가 섞여 있다. 장소에서 느끼는 공포, 불쾌는 장소의 역동성 때문이고 같은 장소에서 느끼는 기쁨, 쾌는 장소의 안정성 때문이다. 빅 벤 앞에 서면 사진이나 영화로만 보던 유명한 장소 앞에 드디어 내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까마득한 절벽 밑을 바라보는 것처럼 두려움과 짜릿함이 함께 느껴진다. 이것이 숭고의 느낌, 아

39) 벤야민, 발터 (1992), 220~224쪽.

40) Mersch, D. (2002), 131쪽.

41) 심혜련 (2019), 36쪽.

우리의 경험이다. 장소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함께 느끼는 것이 장소의 아우라 경험이다.

참고문헌

- 글릭, 제임스 (2008), 『아이작 뉴턴』, 김동광 옮김, 승산.
- 김성환 (2008), 『17세기 자연 철학』, 그린비.
- 김성환 (2018), 「장소에서 공간으로: 근대 과학의 한 가지 성립 배경」, 철학 탐구 제51집, 65~90쪽.
- 렐프, 에드워드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논형.
- 르페브르, 앙리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 메시, 도린 (2015),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메시, 도린 (2016), 『공간을 위하여』, 박경환, 이영민, 이용균 옮김, 심산.
- 벤야민, 발터 (199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반성완 옮김, 민음사.
- 심혜련 (2019), 「장소와 아우라」, 장소 철학 연구팀, 『장소 철학 2회 학술 대회 자료집』, 30~43쪽.
- 케이시, 에드워드 (2016), 『장소의 운명』, 박성관 옮김, 에코리브르.
- 웨스트폴, 리차드 (2001), 『프린키피아의 천재: 뉴턴의 일생』, 최상돈 옮김, 사이언스북스.
- 크레스웰, 팀 (2012), 『장소』, 심승희 옮김, 시그마프레스.
- 투안, 이-푸 (2011), 『토포필리아』, 이옥진 옮김, 에코리브르.
- Descartes, R. (1984), *Principles of Philosophy*, tr. by V. Miller and R. Miller, Dordrecht: D. Reidel.
- Descartes, R. (1985a), *Rules for the Direction of the Mind*, in tr. by J. Cottingham, R. Stoothoff, D. Murdoch,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1.
- Descartes, R. (1985b), *Principles of Philosophy* in tr. by J. Cottingham, R. Stoothoff, D. Murdoch,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1.
- Dobbs, B. (1975), *The Foundations of Newton's Alchemy: The Hunting of*

- the Green Ly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pas, J. (2007), *Heidegger's Topology: Being, Place, World*. MIT Press.
- Mersch, D. (2002), *Ereignis und Aura: Untersuchungen zu einer Ästhetik der Performativen*, Frankfurt am Main.
- Newton, I. (1953), 375~406쪽. *Opticks or A Treatise of the Reflections, Refractions, Inflections and Colours of Ligh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 Newton, I. (1962),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tr. by A. Motte (1729) and rev. by F. Cajor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rom Space to Place Again: A Trend of Modern and Contemporary Theory of Space

Seonghwan Kim (Daejin Univ.)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as it comes from modern times to contemporary years, the focus of spatial theory tends to shift from the concept of space to the concept of place. First, Descartes' vortex theory is the product of the intention to thoroughly geometrize the physics that deals with the motion of bodies. Second, Newton's absolute space, which criticizes Cartesian's vortex as an occult quality, shares with Descartes the intention to geometrize the motion of bodies. Third, the humanistic geography of Yi-Fu Tuan and Relph suggests through the concept of "topophilia" and "placelessness" the place that combines space and human significance as the main concept of spatial theory, but the definition of the place concept is not clear yet. Fourth, for a clearer definition of the place concept, we need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power, and Massey's concept of gendered place provides a clue.

Key words: Descartes, Newton, Yi-Fu Tuan, Relph, Massey, Place, Space

김성환 E-mail: shkim@daejin.ac.kr

투 고 일	2019년 9월 26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12일
게재확정	2019년 11월 12일